

생명 현상

성철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하신 것은 자연상호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대립을 벗어나 자기부정을 거친 인식의 지평에서 모순과 대립을 넘어서는 심오한 통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구두선처럼 의뢰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말은 우주와 인생에 대한 심오한 직관을 함축하고 있다.

이 말이 사회적으로도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마도, 이 말이 모든 사회현상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의미를 통해 혼돈에서 질서에 생명현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본주의의 진정한 의미에는 자본주의의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자기부정의 원리가 있어야 하

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자연의 착취에 의존하여 물질만능의 진보를 추구하며,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를 덮개로 해 온 현대문명에 의한 지구의 파괴이다.

이제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인류는 자연의 파괴로 드러난 자신의 추악한 욕망앞에 깊은 고뇌로서 드러나게 되었다. 자연은 더 이상 자연이 아니라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되었으며, 땅은 더 이상 땅이 아니라 우리의 착박하고 불모화된 마음의 밭이 되었고,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라 우리의 오염된 지혜, 불은 더 이상 불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의 번뇌가 되었다.

바람은 더 이상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이 광풍이 되었으며, 생명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상실해가는 생명의 자유가 되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우리는 현대문명에서의 자연의 고뇌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괴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③

“상호 모순 극복 생태주의적 녹색운동 펴야”

고,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 속에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기부정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무한으로 열린 생명현상으로의 발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진정한 살아있는 통일 원리도 숨어있다. 민족분단의 모순은 자기부정과 자기개방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천민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모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모순 상호 대결구조가 아닌, 있는 자는 있지 않은 자이며, 없는 자도 있지 않은 자라는 성찰을 통해 생태학적 다양성이 '불생명현상'의 극복과 관계되듯이, 다양하게 극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대

로움을 보는 자는 열반을 본다"는 원리에 따라, 자연을 그 있는 그대로의 열반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인간과 자연의 괴로움은 무엇이고 그 괴로움의 소멸은 무엇이며, 그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성찰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성찰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앞에서 무엇보다도 고뇌하는 상태에서 등장하는 땅, 물, 불, 바람과 생명에 대한 참다운 종교로서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미해보면서, 자본주의적 청색운동과 사회주의적 적색운동의 모순을 지양하는 생태주의적 녹색운동과의 연대를 모색해보는 것일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을 법공양 합시다

문의: (02)737-8881

신행수첩

장병의 손에 영주·불사를 신앙을 보내주기 캠페인

죽놀러는 철도에 국토방위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생활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발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얼마나 뜻깊은 일일까

국토방위총회(회장 박상길)는 2월부터 12월까지 팔도의 젊은이들이 모인 군에 영주, 불사, 호신불등 '신앙물 보내주기 캠페인'을 벌여 뜻깊은 불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있다.

장병불자들의 대다수가 군에 와서 불교를 처음 접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둘 때 군장병의 포교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불자들의 정성어린 마음이 조금씩 모인다면 군장병들의 동경소리는 더욱 커져 삼천대 천세계에 울려 퍼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추운겨울 영주하나 불사한권의 보시를 통해 장병불자들과 이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자. (02)748-1728

사경통해 지혜배운다 청년여회 '심경' 강의

불교에 처음 입문한 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경전을 들라면 아마 반야심경일 것이다. 이처럼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말씀이 가장 짧은 경구로 함축되어 있어 많은 불자들에게 친근하게 열송되고 있다. 그러나 눈으로만 읽기 아니라 마음으로 그 뜻을 새겨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수행일 것이다.

청년여회(회장 박진우)는 평상시 늘 접하면서도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반야심경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오는 7일 저녁 7시반 여회회법당에서 생활수행법문을 열고 반야심경 강의를 갖는다.

민족과 사회문제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불법수행에 한치의 게으름도 없는 여래회 청년불자들은 백남식 법사의 강의에 이어 반야심경 사경을 하게 된다.

한자 한자에 마음을 쏟아 신앙의 원력을 높이며 전법의 공덕을 쌓는 수행을 펼치는 것이다.

그때로가 영불이요 기도요 참선인 사경, 그 자체가 생활이요 신앙임을 느끼게 될 생활법문에서 많은 청년불자들은 반야세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02) 747-1902

산사의 식생활 전수 전통사찰음식 강좌

불교와 인체의 생리적 측면을 고려한 승가의 깔끔하고도 감칠맛 나는 공양음료. 종자를 따르자면 제한하는 것도, 절제해야 할 음식도 많았는데 스님은 무엇을 먹고 살

전기? 수행의 과정이라고 여기기도 하겠지만 재가자들이 한번쯤 풀어보실만한 생각이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에서는 그런 의문의 실마리를 풀어줄 강의를 매월 1·15일 2차례 열어 놓고 있다. 수강생들은 본 연구소 강담에서 오전 11시부터 어김없이 문화강좌를 접하게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발우공양실습 및 사찰음식조리실습, 사찰김치 등 우리나라 전통사찰음식을 전수받아 스님들과 '승풍'을 공유해 보는 것은 어떨까? (02)245-0904

홍겨운 프로세스로 안내 불교레크리에이션 교육

프로는 아름답다! 어떤 분야에서든 프로가 된다는 것은 자기 삶의 참주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의 내재를 펴고 프로의 세계 전문 불교레크리에이션 지도자에 도전 할 기회가 마련됐다.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연)는 제4기 전문지도자 과정을 모집한다. 불교레크리에이션2급 지도자 과정인 이번교육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서울 돈암동포교원에서 실시된다.

불교레크리에이션에서부터 불교교리, 찬불가, 레벤트(레크리에이션과 이벤트), 리더쉽과 모임의 진행, 캠프, 게임 등 다양하고 알찬 강의로 미래의 프로 불교레크리에이션 지도자를 양성하게 될 이번교육에 많은 불자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02)935-4967

화랑의 발자취를 찾아 바라밀 어린이 국토기행

초롱초롱하고 해맑은 눈동자



한국전통사찰 음식문화연구소는 매일 두차례 사찰음식 문화강좌를 개설한다.

홍겹고 유익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접하는 알도 진짜 프로 불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많은 음식들을 다 접해하고 영양보충은 어떻게 하시는

플 지닌 어린 불자들이 내일의 문화창달을 위한 파란 꿈을 펼치고자 신라 화랑의 발자취를 찾아 경주로 떠난다.

꽃길사 선수도 서울포교원 산하 바라밀 어린이 기행단(단장 강찬선)은 불방학을 맞이해 오는 21~24일 3박4일간 「화랑의 열을 찾아 떠나는 경주 역사유적 캠프」를 마련했다.

기행단은 경주 남산 등 성지 탐방과 우리문화의 현장답사를 통해 어린 불자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며 불심을 키우는 한편, 자연보호활동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하게 할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국민학교 2학년 이상 중·고생이며, 답사 예정지는 불국사, 첨성대, 경주박물관 등 경주일원이다. (02)3442-3715

생명 살릴 자비손길 기다립니다

두살난 심장병 어린이·신부전증 보살 사경혜애

살날을 앞두고 13개월된 어린생명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무서운 병을 갖고서 태어난 임태현군(2세).

엄마의 가슴로 생활능력이 없는 할머니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결국은 합병증까지 동반하고 말았다.

다행히 불자들의 자비봉사도 입인 광명회(회장 김기원)의 도움으로 지난 18일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새생명을 갖기까지는 몇차례 넘겨야 할 고비가 많다.

경상대 병원 중환자실에서 천진스럽게 놀고 있는 태현이의 눈이 맑고 초롱해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런지. (0591)751-3384 불일 803-01-344384(광명회)

자비의 손길을 보내야 할 불자가 또 있다. 경북 상주 호암 어린이집 보모 김미숙(23세 보련회) 불자. 만성 신부전증으



로 신장기능이 15%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부도로부터 소외받은 어린자녀들을 돌보던 보련회보살이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 다시 아이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야 하겠다. 특히 장기기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 (0582) 541-7863

“커서 어른이 될 수 없겠네요!”

삶이 덧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인생무상을 읊조린다. 그러나 무상(無常)이 허무는 아니다. 무상이란 말 그대로 「항상이란 없음」을 의미할 뿐이다. 세상 어디를 둘러 보아도 사실상 변치 않고 항상하는 것,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일 항상하는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곧 정지상태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은 화석처럼 단단히 굳어져 움직이지도 변하지도 않는 상태에 있음을 뜻하게 된다.

만약 인생이 무상한 게 아니라면 이치상 사람은 태어날 수도 없고 실사 태어났다 해도 성장할 수 없게 된다. 여러분이 인생 무상을 한탄한다면 아마도 자녀들로부터 이런 항변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무상이 아니라면 저는 커서 어른이 될 수 없겠네요!”

우주 법계에 고정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일체는 나서 머물다 사라져 간다. 고로 부처님께서 일찍이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를 설교하셨다.

사람도 태어나면서 이미 죽을 숙명을 알고 태어난다. “응!” 하고 고고성을 울리며 나왔을 때 이미 예고 없는 사형선고를 받은 가운데 한 생애를 꿈 속의 일처럼 살다가 돌아간다. 마치 한 철 소풍에 나섰다가 가는 것처럼 나그네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인지 ‘한 세상 수단방법 가릴 것 없이 나 하나 편케 살다가 가면 그 뿐 아니냐’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무상한 삶도 한 생애에서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시작과 끝으로 토막쳐진 듯이 여겨지지만 무에서 유(有)가 나올 수 없고 유가 무로 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로 한 철 사는 인생일지라도 분명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진화를 위한 노력이다.

진화의 종점을 부처님께서는 열반적정(涅槃寂靜)이라 하셨다.

베파베리아

(VAPOUR BARRIER: 알미늄 보온방습 단열제)

자체개발에 성공!

삼민산업(주)은 그 동안 수입에만 의존해온 고품질 베파베리아의 자체개발에 성공, 의장등록,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으며 국내 유력인 생산업체 납품과 국외수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삼민산업(주)이 개발한 베파베리아는

- 1. 경이적인 단열 보온효과가 있습니다.
- 2. 방습·방수 효과가 우수합니다.
- 3. 실내의 온도를 차단하므로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삼민산업주식회사

경기도 서울시 정자동 서화공단 4 나-109호
전화: 0345-498-5533
팩스: 0345-498-8998



책방 여시아문에 마련된 '맑고 향기롭게' 코너의 무공해 세계가 주목되는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맑고 향기롭게 삼시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맑은물을 지키겠다는 불자들의 의지가 잔잔히 번지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사 1층 책방 '여시아문'이 지난달부터 마련한 무공해 비누·세제를 판매하는 '맑고 향기롭게' 코너가 벌써부터 주목되는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현재 선보이고 있는 무공해 상품은 빨래비누(물사랑), 주방용 세제(천연생), 세탁세제(맑은생) 등 11종류. 모두 무공해 제품으로 일반 합성세제와는 달리 하천오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뿐더러 세척력이 뛰어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맑은 물 지켜야죠”

책방 여시아문

무공해세제 판매·스티커 무료 배포

'맑고 향기롭게' 코너에는 이웃의 권유로 제품을 사러 온 주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무공해 세제를 손에 들고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세브나가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구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환경문제가 나아질 수만 있다면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 불자들이 노력해 후손들에게 건강한 물 건장한 땅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한 주부가 세탁세제 10개를 다량으로 구입해 서점문을 나서며 절음이 가버려 보인다.

며칠전부터 '여시아문'에서 무공해 비누와 주방용 세제를 구입해 쓰고 있다는 주부문심 보살(51, 방학동)은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내 스스로가 무공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다소나마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기쁘다”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요가 많지 않은 탓에 소량생산으로 인해 가격이 일반제품과 비슷하거나 다소 비싼 것이 흠이지만 맑은 물 찾기 실천운동이 널리 퍼져 무공해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 지금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공해 세제는 폐수유에 가장소다를 넣고 끓이면 하면 만들 수 있어 각 가정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천보호는 물론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시아문에서 무료 보급하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또한 일반인들 사이에서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시아문 김경숙 대리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생 각보다 훨씬 높아 이런 관심이 지속되는 한 우리의 땅과 물은 언제나 건강할 것”이라며 마침 무공해 세제를 사러 온 한 주부에게 다가갔다. 무공해세제 구입문의 (02)737-0695

(한범우 기자)